



군종주보

2017년 12월 10일(제853호)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대림시기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환의 두 번째 초인 연보랏빛 초에 불을 밝히고서 한층 더 밝아진 촛불처럼 우리 마음을 더욱 밝게 비추고 깨끗해져 가는 시간입니다.

기다림과 준비의 시기인 이번 주일에 들은 복음말씀은 마르코 복음의 첫 시작이며, 그 내용은 세례자 요한의 외침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세례자 요한은 외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마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자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알고 싶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서부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이고, 성탄절은 쉬는 공휴일을 의미할 뿐입니다.

‘성탄절은 백화점에서부터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화점만큼 성탄을 잘 준비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상품을 준비하고,

트리를 장식하고, 산타클로스를 동원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우리는 성탄을 백화점에서 축하하고, 쇼핑으로 이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화려한 백화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할수록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에 현혹될 것이고, 준비를 잘 할수록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의 구유 안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백화점과 같이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준비는 일 년 동안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들, 물건들, 사람들을 비워서 예수님의 구유가 놓일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주님의 길입니다.

예수님 성탄의 기쁨은 화려한 불빛과 값비싼 선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건(대지인드레이) 신부
오뚜기(육군 제8사단) 상영 주일

- 제 1 독 시 이사 40,1-5.9-11
- 회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제 2 독 시 2베드 3,8-14
- 복음 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복 음 마르 1,1-8
- 영성제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진례를 살다

로마 교회에는 아직도 주교와 함께 하는 장엄미사 때 공동 집전자들 간에 양볼을 차례로 맞대는 평화의 인사 양식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평화의 인사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는지는(예를 들면 포옹이나 악수 또는 목례) 그 지역 백성의 문화와 풍습이나 특성에 보다 어울리게끔 지역 주교 회의가 결정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주교회의는 “서로 목례나 합장, 악수 등으로 알맞게 인사를 나눈다.”고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인사할 때 고개를 들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연장자인 어른들에게 아랫사람이 인사할 때는 눈을 아래로 하고 허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인사 하라고 배워 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평화 표시가 일상에서 나누는 보통의 인사가 아니라 성찬례 안에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 전에 서로에게 주님의 평화를 기원하고 사랑과 일치로 드러내는 표지임이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당에서는 옆자리의 교우들에게, 심지어는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조차도 지극히 형식적인 틀에 박힌 몸짓과 아무 느낌이 없는 공허한 소리로 “평화를 빕니다.”라는 인사말을 나누는 것은 재고해 볼 사항입니다. 부부 사이에 한 주간의 수고와 정성에 대해 따스한 말과 함께 고마움이 담긴 몸짓 표지를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주일이나 대축일, 혼인 미사나 장례미사(로마 미사 경본 지침에는 장례미사 때에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게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에서는 평화의 인사를 생략하는데 이는 달리 생각해야 할 점이다. 유가족에게 하느님의

평화의 예식

위로와 평화를 빌어주는 인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간이다.) 때는 달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소그룹 미사나 가정미사 때는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친교를 나누는 방법이 주일 신자들이 많이 모인 미사 때와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사실 주일 미사 공동체 안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알고 자신의 영혼과 하느님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점차로 극복되어야 합니다. 영성체가 우선 하느님과 믿는 이와 일치와 더불어 영성체하는 사람들 간의 일치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치감을 표현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인사에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들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중세기에 예수님과 요한을 묘사한 그림에도 이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제자는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자기 머리를 기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왼손을 요한의 어깨 위에 얹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제자의 오른손을 잡고 계십니다. 또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경당 천정에 그린 그림을 보면 하느님 아버지는 아직도 잠들어 있는 아담의 손을 당신 손으로 건드리심으로써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인사라는 것은 “나는 당신 곁에 있다. 당신은 나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의 인사 때 유의할 사항으로 사제나 봉사자들은 미사 거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단을 벗어나지 말고 제단에 머물러야 한다고 미사 경본 총지침은 가르칩니다.(총지침 154항)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목	상
---	---	---	---



비밀이 적당히 적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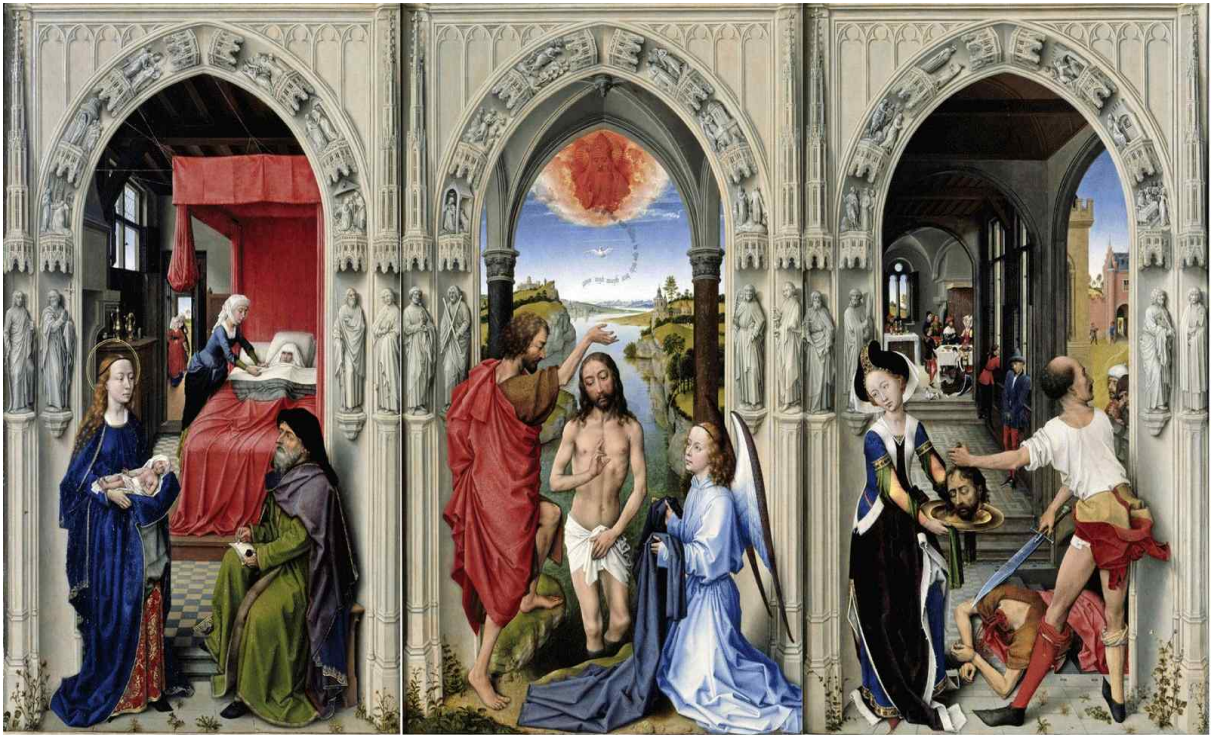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적당히 적당히

이 금 위에서
적당히 적당히
줄타다 보면
좋은 날이 올거야.
모험할 것 없이
분위기 뵈서
이리저리
적당히 적당히...
세상이 그리 만만하니
그리 사는 꼴을
모두가 보고
모두가 안다.
좀 잘하자.

상화이야기

세례자 요한 제단화



로지어 판 데이 바이덴(1400-1464)
 1455-60년 작
 나무 패널 위 유화(각: 77 X 48 cm)
 베를린 미술관, 독일 베를린

예수님은 물에 다리 아랫부분이 잠기신 채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계시며, 예수님의 머리 위로 비둘기와 하느님의 모습이 구름 속에서 보인다.

지난주에 이어 이 3폭 제단화의 중앙 부분이다. 석조 건물처럼 보이는 전경 바로 뒤로 야외의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 세례자 요한의 오른발은 교회건물처럼 보이는 부분에, 왼발은 야외의 돌에 걸쳐져 있고, 오른편의 천사는 예수님의 걸음을 들고, 교회건물처럼 보이는 부분에 무릎을 꿇고 있다.

교회건물의 아치처럼 보이는 곳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 등, 예수님의 생애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생애 등이 조각처럼 그려져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대림 제2주일: 비승 문병현 신부

◆ 교구장 동정

- 태극(3군단) 성당 사목방문
 때: 12월 10일(주일)
- 주교 영성 모임
 때: 12월 11일(월)-12일(화)
 곳: 가톨릭대학교 사제평생 교육관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 때: 12월 14일(목) 18:00
-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